

# AMEPS 총회 및 EPS

## 2006년도 AMEPS 이사회 및 총회

회의에서 2005/2006 예산집행실적 승인함(총수입 26,539.92 US\$, 총지출 2,392.87 US\$, 잔액 24,147.42 US\$. 이어서 2006/2007 예산(총수입 36,147.42 US\$(전년도 이월, 분담금, 총지출 10,000 US\$(웹사이트 유지비, 총회 준비 출장경비), 차년도 이월 26,147.42US\$)을 승인함. 국가별 분담금 납부기준은 국가별 EPS 총매출액으로 함(연간 소비량 200,000톤 이상인 한국과 중국은 각각 2,000 US\$). 금후 AMEPS 행사시 성형기계 전시 등 참여비용의 5~10%는 AMEPS 출연금으로 납부하는 방안을 차기 SC회의 시 검토하여 보고토록 함.

### 중국 장인시에서 개최

2006년 11월 8일부터 11월 10일까지 3일간의 AMEPS 총회 및 EPS 재활용 회의를 중국 장수성 장인시 국제회의장에서 개최. AMEPS 회원국인 한국(최주섭 부회장 참석), 일본, 필리핀, 홍콩, 호주, 중국, 대만,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뉴질랜드, 태국 대표 불참) 대표자들과 EUMEPS, 남아프리카, 멕시코 대표자들이 참석함. 주최국인 중국(CPIAIEPS)에서는 회원사 임직원 약 300명이 참석함.

### 2007년도 개최국 결정

SC회의는 2007년 4~5월 중 준회원국인 베트남이 개최토록 권유키로 하고, 이사회 및 총회는 2007. 11월 중 태국 또는 말레이시아에서 개최키로 함. 금후 AMEPS 홍보팀을 구성 운영키로 하고 태국, 호주, 한국(신호식 실장) 등 3인을 홍보팀원으로 위촉하고, 2007년 1~2월 중 1차 회의를 홍콩에서 갖기로 함.



# 재활용회의 참석 후기

## EPS 재활용 회의

### 아시아의 EPS 소비 현황

2005년에 2,000,000톤을 소비하였으며 그 중 건축토목용은 43%, 가전완충재 42%, 농수산물상자 15%로 세분됨. 2004년과 2005년의 연간 소비량을 비교할 때 소비량 감소국가는 한국, 일본, 홍콩 등이며, 소비량 증가 국가는 중국, 태국, 인도, 인도네시아, 호주, 베트남, 뉴질랜드, 필리핀 등임.

### 중국의 EPS 사용 및 재활용 현황

EPS 생산량은 2005년 1,280,000톤 생산으로 세계 1위(유럽 전체 1,000,000톤, 미국 600,000톤, 한국 210,000톤, 일본 190,000톤)임. 중국은 1997년 소비량 249,000톤에서 해마다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2010년 소비량은 1,900,000톤으로 추정하고 있음. 주요 소비처는 가전제품의 완충포장재와 토목용이 주류이나, 최근에는 냉동창고, 샌드위치판넬, 건축단열재, Art mould, Shape cutting 등에 사용이 늘어나고 있음. EPS 재활용율은 68%(물질 및 화학적 재활용의 51%, 기타 17%)임.

### 재생 EPS bead 생산 기술

(중국 로이알 그룹 회장, 원료 생산량 연간 800,000톤으로 세계 1위)  
수년전 일본의 가전업체 대표가 주장한 예기를 하고 싶음. "가전완충재 소비는 1995년도 사용량의 50% 이하로 감소할 것임. 2000년에는 제품 중량 5kg 이하 가전품에서 EPS 사용은 중지될 것임. 2002년에는 5 - 10kg의 제품 포장에 EPS 사용은 중지될 것임. 그리고 10kg 제품에도 EPS 포장재 사용량이 50% 까지 감소할 것임"라는 것이 현실화되고 있음. 이에 따라 EPS포장이 펄프물드나 벌집형 골판지로 서서히 대체되고 있음. 예를 들면 중국의 하이얼 가전업체는 냉장고 완충포장재를 EPS에서 벌집형 골판지로 대체하여 로이알 그룹 칭다오 공장의 EPS 판매량이 50% 감소되었음. 하이얼 가전업체는 포장재 대체로 포장비용을 10% 줄였다고 설명하고 있음. 이러한 상황이 우리가 재생EPS 비드를 사용하여 대체 포장재와의 가격 경쟁력을 높여야 하는 이유임. 중국에서는 2005년부터 가전완충재의 수요가 서서히 줄어들고 있으며, 건설부에서 에너지 절약용 건축자재로서의 사용 증가 없이는 EPS 총사용량의 지속적 상승은 어려울 것임. 당사는 재생 EPS에 대한 연구를 적극적으로 행하고 있으며, 일본 Hitachi사의 기술적 협력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재생비드를 사용한 양질의 완충포장재 생산을 개시할 것임.

### 일본의 EPS 사용 및 재활용 현황

회원사는 원료 생산업체 5개소와 성형업체 141개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EPS 생산량은 2005년 187,000톤(가전 완충재 28%, 농수산물상자 57%, 건축단열재 등 15%)이며, 재활용율은 71.1%(물질 및 화학적 재활용원료 42%, 에너지 이용 29.1%)임. 통상산업성에서 재활용가이드라인을 만들어 협회가 자발적 회수 재활용체계를 구축 운영하고 있음. 협회의 특수사업으로 수산청과 협회가 공동으로 폐부자 재활용설비 설치비를 지원하고 있음. 감용물인 잉고트는 RPF(Refuse Plastic Fuel)로 만들어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고 있음.

### EUMEPS의 EPS 사용 및 재활용 현황

12개 회원국에서 2005년도에 형물 196,850톤 생산(평판 포함시 815,720톤). 그러나 유럽 전체 28개 국가의 EPS 생산량은 약 1,000,000톤에 이룸. 유럽에서는 정부의 정책 변화 즉 보건위생 및 안전성 표준의 강화, REACH 규제로 EPS 비드의 불활성물질에 대한 규제 개시, 식품접촉물질 규제의 강화, 포장폐기물의 재활용책임의 강화 등에 따라 산업계의 재활용사업 추진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한편 NGO의 환경 관심고조로 재활용 압력이 높아지고 있음. 플라스틱 포장재의 경우 재활용의 고 비용, 재생원료의 수요 한계 등 문제가 있으나, EPS는 회수율 47%, 재활용율 32%로 EU의 재활용목표를 달성하여 성공사례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EPS 제품의 신시장 개척에 큰 힘이 되고 있음. 플라스틱에 대한 이미지 개선 프로그램으로 초등학교 환경교육에 활용(Magic Box)하고, 크리스마스 시즌에 청소년과 함께하는 재활용 캠페인을 실시함.